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81860

2020년 2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희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with Orchestra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202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희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분석

지도교수 조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희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희영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재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정 은 인

2019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오케스트라와 주관적 안녕감 ····· 4

1. 선행연구의 고찰 ····· 4
2.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가치와 종류 ····· 8
3. 주관적 안녕감 ····· 14

Ⅲ. 연구방법 ····· 16

1. 연구대상 ····· 16
2. 측정도구 및 설문내용 ····· 17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19

IV. 연구결과 ····· 20

1.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
2.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분석 ····· 24
3. 주관적 안녕감 차이 분석 ····· 3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론 및 제언 ····· 37
1. 결론 ····· 37
2. 제언 ····· 39

참고문헌 ····· 41

부록 ····· 4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문화예술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선행연구 사례 ····· 7
<표 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 분포’ ····· 16
<표 3> 측정도구 및 설문 내용 ‘설문지 내용 및 신뢰도’ ····· 18
<표 4>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성별’ ····· 20
<표 5>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결혼상태’ ····· 20
<표 6>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연령’ ····· 21
<표 7>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직업’ ····· 21
<표 8>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최종학력’ ····· 22
<표 9>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월 소득’ ····· 22
<표 10>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종교’ ····· 23
<표 11>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평균 분석’ ····· 24
<표 12>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성별 분석’ ····· 24
<표 13>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결혼상태 분석’ ····· 25
<표 14>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연령대 분석’ ····· 26
<표 15>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직업 분석’ ····· 27
<표 16>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최종학력 분석’ ····· 28
<표 17>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월 소득 분석’ ····· 29
<표 18>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종교 분석’ ····· 30
<표 19> 참여유형 간 주관적 안녕감 ‘평균 분석’ ····· 31
<표 20> 주관적 안녕감 ‘성별 분석’ ····· 31
<표 21> 주관적 안녕감 ‘결혼상태 분석’ ····· 32
<표 22> 주관적 안녕감 ‘연령대 분석’ ····· 32
<표 23> 주관적 안녕감 ‘직업 분석’ ····· 33
<표 24> 주관적 안녕감 ‘최종학력 분석’ ····· 34
<표 25> 주관적 안녕감 ‘월 소득 분석’ ····· 35
<표 26> 주관적 안녕감 ‘종교 분석’ ····· 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with Orchestra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Lee, Heeyoung
Advisor: Prof. Cho, Jungeun, Ph. 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Unlike the past parents, the middle-aged generation living in modern society, most of them receive higher education and enjoy leisure and cultural arts activities with more interest and desire than before. This study also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articipants in orchestra activities, observe their emotions and change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rchestra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i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hich is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contents according to gender,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final education, monthly income, and religion were examined. In case of gender,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orchestra activities, male students were not participating, and married students were married in both groups.

By age, both groups were in their 50s, and in occupation, both groups had the highest public servants. In the final education, both groups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 highest, and monthly income was between 2 million won and 3 million won. Lastly, Protestantism was the highest in religion and non-participants were the highest in religion.

Next, the average difference of activity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howed significant results on average, and a sing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activity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s a result, all the subjective well-be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the results were meaningful, but I think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things in our lives that need to be improve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various environments and programs.

First, I suggest a wa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level by activating the arts activity club.

Second, by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all the people can participate, the happiness index of the people can be increased by enjoying music for both sexes.

Third, orchestra and one-person instrument class are essential for the common curriculum of the people, and if this part is introduc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a good influence on academic ability.

Keywords: Orchestra,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들은 과거 부모 세대와는 달리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황보경자, 2017, p. 11). 특히 문화예술 활동에도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욕구가 있기에 예술 활동을 주체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며, 예술 활동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개인의 행복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각자가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술 활동일 수도 있을 것이다.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순위" 는 OECD 34개의 대상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OECD 평균인 6.58점보다 낮았다. OECD 자료로 본 한국인은 삶의 만족도 점수가 2013년 26위에서 2014년 25위로 순위가 잠시 올랐으나 2015년 27위로 순위가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제시한 '주어진 시점에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과 행복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국가의 부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행복의 전체 수준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전형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다(Easterlin, 1974). 즉, 우리의 경제 성장과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개인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으나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행복은 물질과 정신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만족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회나 박물관, 음악회를 관람하고 문예창작, 미술활동, 악기연주와 같은 직접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김승혁, 2017, p. 20).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도 예술적 측면은 예술의 표현, 감상, 감수성, 창의력, 미적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험이자 실천이다(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경, 2012 p. 11). 또한 예술교육활동은 학생과 성인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개인의 예술적 기능과 문화적 감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활력과 소통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술교육에 관한 담론은 다양한 방향과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 사람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예술교육에서는 음악활동이 그리고 행복감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삶의 질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현대인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 심리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청중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자세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솔지, 2015, p. 1).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한 동호회 활동으로 1990년도 이후부터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오케스트라 동호회의 규모가 전문 오케스트라와 유사할 정도로 그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연주 레파토리 및 실력도 점차 향상되면서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향유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최경운, 2010, p. 45-50).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양적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운영과 현실적인 실태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선행연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고 있다. 즉, 오케스트라 참여자에 대한 보다 확대된 만족도와 민간 오케스트라 단체의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된 연구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활동의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하고 정서적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만족감을 비교하였으며, '행복감'이라고 알려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만족도 분야와 정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에서 예술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와 오케스트라 활동이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감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를 고찰해보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자와 일반 동호회 참여자의 일반적인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자 설정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자와 일반 동호회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자와 일반 동호회 참여자의 활동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자와 일반 동호회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동호회 활동과 일반 동호회 활동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 전남지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자와 일반 동호회 참여자이다. 일반 동호회의 범위는 오케스트라 동호회를 제외한 모든 동호회 활동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음악 장르의 동호회에 적용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척도는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라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성하였으므로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연구의 결과는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오케스트라와 주관적 안녕감

이 장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론적 배경을 오케스트라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과 각 하위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의 고찰

오케스트라의 경험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예술적인 면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백선영, 2019). 이 연구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단원들은 자신감 및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개인적 변화를 통해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은 아마추어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 소모임 형태로 나타나며 자발적, 자생적, 자율적으로 생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여가생활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표현력과 창의력 제고를 통한 의사소통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음악적 역량은 일상에서 문제해결 능력 확대, 삶의 활력 회복을 통한 가정 및 국가경제의 생산력 증대,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관계의 회복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문화예술 영역의 저변 확대 및 시장 확대 등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케스트라의 대중음악의 편곡방법의 연구에서는(김건, 2019), 오케스트라 활용곡 23곡을 중심으로 악기별로 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10년 간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을 분석한 김다희(2018)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들의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오케스트라의 내적 효과와 외적 효과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오케스트라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김다희, 2018).

예술 활동에서 유형별 분류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술 참여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등으로 분류된다. 예술 참여활동 중에서도 오케스트라 활동은 문화예술 공연, 연주에 직접 참여하는 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이 있다.

국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 종류에는 대학 내 학생들로 조직된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학교 오케스트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호인 오케스트라', 문예회관 전속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지원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이 있으며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다른 오케스트라에 비해 동호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창단하려고 준비하는 단체도 많았고, 단체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은진, 2011).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크게 조직구성, 재정,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케스트라의 편성은 평균적으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의 기본적인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단체 상황들은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악기만을 선호한 결과 몇 몇 악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악기별 편중과 단원들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정문제는 지원금이나 후원 또는 협찬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주단체가 단체 소유의 연습실도 없이 특정 공간을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단원들 간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오케스트라 경우 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게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예술동호회 활동이 활성화 된 배경에는 2010년 상반기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환경이 있다. 일반적인 동호회는 2012년 8월 네이버 밴드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 2013년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졌다.

동호회란 단순한 취미생활의 차원을 넘어 자아실현과 스트레스 해소, 정서함양과 사회 활동만족, 일체감과 소속감의 고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하고 광점위한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해내는 적극적이고 집합적인 여가활동이다(김석환 외, 2006).

동호회 활동은 동일한 취미나 관심사, 여가취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활동을 말하며 구성원의 공통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목표와 개인적인 과업을 서우치하기 위해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적인 집단이다(임번장, 2000). 동호회 활동에는 음악 동호회나 테니스 동호회 등 문화와 체육 관련 동호회부터 정치발전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즐기는 모임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특히 사내 동호회 활동은 업무와 일상에서 탈출하여 주체적 존재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즐겁고 의욕적으로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자신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철현 외, 2005).

고계명(2017)은 제주지역 공무원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문화예술동호회 현황은 색소폰동호회, 사진동호회, 제주시청 합창동호회, 합창동호회, 제주지방병무청 관악동호회, 제주세무서 기타동호회, 제주교도소 기타동호회 등 7개 기관에서 총 9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과거 스포츠동호회를 위주로 한 활동에서 최근에는 사진동호회, 음악동호회, 합창동호회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호회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이동이 빈번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근무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사무소 보다 도청, 시청 등 청 단위에서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도구, 사회통합의 도구, 예술기관 경영의 한 방편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예술교육의 목적이 예술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인교육의 성장 동력으로 존 듀이에 의해 기술된 것처럼 예술교육은 예술에 대한 관점을 통해 의사교환의 명확성과 협동성 등을 배우게 되어 생산적인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개개인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으려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4).

음악활동이 행복감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안녕감'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술교육과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문화예술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선행연구 사례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조사 방법
문화예술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선행 연구	김종식 (2015)	노인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노인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며, 교육 만족도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설문조사 실시
	김혜란 (2013)	교회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감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설문조사 실시
	최현묵 (2008)	문화복지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공론화 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으로 나타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설문조사 실시

<표 1>에 나타난 연구들의 사례를 보면 예술교육과 주관적 안녕감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이 가능하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은 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복지로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가치와 종류

1) 오케스트라 활동의 교육적 가치

오케스트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조직화된 예술 활동이다. 개별적 악기교육을 통한 음악성과 감수성 향상이 더해진 오케스트라 활동은 인성, 감성 교육이 포함된 전인교육도 함께 가능하게 하는 공연 예술 활동이다.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교육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시민 오케스트라, 더 나아가 다문화 오케스트라까지 교육대상자들의 폭이 넓혀지면서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층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이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층에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악기 교육이 부유층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 시켜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갖는 오케스트라 활동은 교육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책임감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준다(김다솜, 2012).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음악적 ·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음악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음악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및 다양한 형식을 이해하고, 미적요소를 깨닫고, 나아가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음악적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으며 대중가요에만 관심이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이홍수, 1994). 이렇듯 청소년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키울 수 있음은 물론 악기 연주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갖는 오케스트라 활동은 많은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손향금, 2015). 일차적으로는 음악 교육으로 인한 연주 실력과 음악성이 향상되지만 음악 외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범은 오케스트라 활동이 주는 주관적 가치를 음악적 측면과 자기 발전적 측면, 그리고 사회성 발달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음악적 측면에서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러 악기들의 음색을 경험할 수 있고 각 시대에 맞는 악곡의 해석과 연주로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음악성 계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둘째, 자기 발전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 등을 연주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감으로 연계 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여주 활동이 자신의 삶에 있어 건전한 취미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바른 심성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러 악기들의 조화를 만들어야하는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되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소리의 조화를 위해 스스로 연습을 하게 되며 이는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우게 한다(장기범, 2005).

2) 오케스트라 활동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테마의 형태를 도입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오케스트라 종류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오케스트라와 민간인 중심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꿈다락 오케스트라와 엘 시스테마가 있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e Antonio Abreu) 박사가 음악을 통해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8명의 젊은 음악가를 모아 최초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지난 40년간 3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나눠주고 음악을 가르쳐왔다(성지경, 2015). 오케스트라 연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음악 교육은 거리를 떠돌던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책임과 의무, 질서와 배려 등의 가치를 익히게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청소년들이 겪은 획기적인 변화는 그 가족과 이웃에게 까지 전해져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던 베네수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켰다(체피 보르사치니, 김희경 번역, 2010). 즉, 이 장에서는 학교와 민간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은 2011년 시행 당시 교육부에서 예술인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문화예술소외·취약 지역, 학교폭력 심각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 65개교에 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생 오케스트라는 교육 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총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은 창의력과 감수성을 개발시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취미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소속감을 갖는 등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이 · 최경호, 2015).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고자 추진해 온 사업이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계발은 물론, 함께 악기를 배우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자긍심과 유대감을 고취하게 되는데, 이는 인성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효과로 학생 오케스트라가 교내 연주활동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나 지역축제, 청소년 음악축제의 참여와 노인센터 방문공연 등 다채로운 연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총 500개교이며, 학생 오케스트라를 진행중인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 개발은 물론, 연습을 통한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변화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전학 오고 싶은 학교로 변화된 사례 등 학생 오케스트라는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의 보람과 긍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2012).

(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성립의 배경에는 주5일 근무제와 '놀토제'로 운영되었던 주5일 수업제에서 비롯된다. 주5일 수업제는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일명 '놀토제'로 운영되었다. 2012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어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주5일 전면시행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2009년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과 인성 및 창의성을 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르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시키며, 단순한 기능교육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기획되었다(홍열음, 2019). 이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해 국공립 기관과 16개의 시 · 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등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진, 2016). 이러한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사회적 요구와 창의, 그리고 인성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입 배경에 존재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하여 매주 토요일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와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토요문화학교의 운영은 학습자와 교육자간의 상호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61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장보민, 2014).

(3)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우리나라 음악교육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뮤직홈 오케스트라는 모든 계층이 누구나, 어디서나, 음악을 쉽게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국 각 지역 중심의 1,000개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 사업이 그들의 목표라고 한다. ‘교도소 오케스트라’, ‘병원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가족의 재발견 오케스트라’, ‘장애인 오케스트라’ 등 사회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과 더불어 사회적 소의계층과도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와 우리동네 뮤지컬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사진은 각 지역에서 음악대학 및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공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1회 2시간 레슨과 합주를 병행하는 수업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연 2회의 정기연주회로 단원들이 연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뮤직홈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음악문화는 “뮤직홈”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가정 안에서 기쁨과 웃음이 가득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음악 동호회의 유형

최근 수년간 생활문화예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호회 개체 수와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구본수 외, 2011; 윤소영, 2012). 동호회 활동은 개인이 일상에서 즐기며 취미를 공유하는 규범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실현과 공동체성을 획득한다(조현성, 2012). 그리고 최근 여가시간 증가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예술을 관람하기보다 직접 예술 활동의 생산자로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몰입과 열정을 갖고 경제적, 시간적, 신체적인 투자를 의미한다(황선환 · 김미량, 2010).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일각에서는 '단순 관람'보다 연극 등 예술관련 동호회 참여로 직접 공연 행위 자체를 즐기는 '참여형 문화복지' 확대 일환으로 '문화예술 프로슈머' 양성 방안도 나왔다(이상훈, 2013).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활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전수환, 2010). 오케스트라의 수요 증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참여와 활동의 욕구들이 커져가는 환경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음악 동호회의 연습환경과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임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중심 모임

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공간에서 기획한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구성된 모임으로 자발성이 강한 모임 유형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모 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김세훈, 2008, p. 25-27).

(2) 지역 내 기존 모임

지역 내 기존 모임은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이를 위한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부녀회나 노인회를 토대로 만들어진 풍물놀이 모임, 전통문화예술 교습 모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직원 사이의 유대감이 보존된 형태로 구성이 이루어지며 마을 축제, 학습 동아리 등 기타 활동과 연계되는 경우로 나타나기로 한다(김은진, 20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자연발생적 모임

같은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에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마추어 모임 활동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스포츠 모임, 오락 여가활동 모임, 전문 취미모임 등 다양한 예 가 있다(장영일, 2017).

(4) 직장 내 취미 동아리 모임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경우와 타 기업의 적극적인 주도로 조직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각종 취미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예산 및 공간 활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타 기업의 지원이 없더라도 직장 내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동료들과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동아리 활동 유형을 직장 내 혹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비 하였을 때 어떤 유형이든지 공동의 취미를 전제로 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직장 내 동아리 활동에서도 소규모 실내악단이나 더 확장된 규모의 취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나 아마추어 활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율적, 자발적, 자생적으로 생성 ·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생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능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 회복을 통한 국가경제의 생산력 증대,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관계의 회복 등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장영일, 201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뜻한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뜻하는 인지적 요소, 일상의 정서적 경험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인 정서적 요소와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심리적 번영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Szalai(스잘라이)는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상에서 느끼게 되는 안녕감이나 행복감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으로 정의하였다(Szalai, 1980).

Ryff(리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아 수용성,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지배력,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적 성장 요인으로 세분화 하였다. 자아 수용성(Self-acceptance)은 정신 건강의 핵심요소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과거에 대한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는 공감과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한다(김수린, 2010). 자율성(Autonmy)은 외부적 자원에 의한 영향이 있을 때조차 흥미와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근거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은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은 삶의 의미와 목적, 삶에 대한 방향감각 및 계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아울러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은 개인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뜻한다(Ryff, 1989).

Diener(디너)는 주관적 안녕감을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적 평가는 삶의 만족감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정서적 평가는 긍정 적 또는 부정적 정서 간에 균형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행복감을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김사라형선, 2005).

주관적 안녕감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경험)에 기초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건강, 안락함, 부, 명예, 육체적 안락 등과 같은 외적 조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행복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 행복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Camphell, 1976).

둘째,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부정적인 정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적 정서와 부정적인 부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원정, 2009).

셋째, 주관적 안녕은 삶의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비록 삶의 특정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감정상태가 평가된다 하더라도 행복의 핵심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Veenhoven, 1991).

넷째, 주관적 안녕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모두를 포함한다. 이것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요소로서 주관적 안녕감에 관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은 많은 정적정서와 적은 부적정서로 높은 생활 만족도를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Camphell, 1976).

2) 주관적 안녕감 구성요소

(1) 인지적 정서(Cognitive)

인지적 정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하며, 이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인지적 정서의 요소로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성취를 말한다.

(2) 정서적 요소(Affective)

정서적 요소로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정서는 삶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즐거움과 행복감 같은 상태를 말하고, 부적 정서는 슬픔과 분노 등 불쾌한 정서나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데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3) 심리적 번영감(Flourishing)

심리적 번영감은 개인의 삶의 의미, 낙관성, 사회적 관계 측면등 삶의 목적과 의미 및 가치 등 개인의 잠재성이나 심리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면서도 우수한 정신건강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김승혁, 201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오케스트라 동호회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동호회 단원이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 이상의 성인이다. 따라서 아마추어 성인 오케스트라의 만족도와 오케스트라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가 아닌 비참여자(각기 다른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에 대해서도 비확률 임의표집(accidental sampling) 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2월 23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집단(이하 오케스트라)과 스포츠, 독서, 게임 등 동호회 활동 집단(이하 일반 동호회)으로 구분하여 각각 200부씩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오케스트라 활동 집단 107부, 동호회 활동 집단 98부이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7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투입된 분석 표본은 오케스트라 활동 집단 103명, 동호회 활동 집단 95명 총 198명이다.

<표 2> 연구 참여자 분포

성 별	오케스트라 참여자	일반 동호회 참여자	합 계
남	18	50	68
여	85	45	130
합 계	103	95	19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측정도구 및 설문 내용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오케스트라 단원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동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활동만족도 신뢰도(α)=.947, 주관적 안녕감 ‘인지적’ 신뢰도(α)=.926, ‘정서적’ 신뢰도(α)=.944, ‘심리적’ 신뢰도(α)=.920」(김승혁, 2017)에 제시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예비검사를 통해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성된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본 논문에 맞는 유형의 설문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는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뮤직홈의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영역 5문항, 정서적 영역 6문항, 심리적 영역 5문항으로 모두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설문내용

설문 내용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동호회 활동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는데 특히 성인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 동기의 관한 연구(박유림, 2017),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이루리, 2015), 구조화된 악기연주 활동이 양로시설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 및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박진솔, 2017), 플루트 연주활동이 중년여성의 우울증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기영, 2012),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하미경, 2013)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10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즉, 본 설문지는 오케스트라 활동 중심의 선행연구와 심리적 ·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설문지 내용 및 신뢰도

설문 영역		문항내용	척도 및 신뢰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최종학력, 월소득, 종교	7개 문항 명목척도
오케스트라 (동호회) 활동만족도		활동이 재미있다. 쾌감을 느낀다. 기분이 좋아진다. 관심이 매우 많다. 즐겁고 기다려진다.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다. 주위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권유로 마지못해 활동하고 있다(역산). 할 일이 없어서 참여하고 있다(역산).	10개 문항 평균, 7점 척도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 높음 신뢰도(α)=.947
주관적 안녕감	인지적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내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다. 이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중요한 활동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	5개 문항 평균, 7점 척도 점수가 클수록 인지적 주관적 안녕감 높음 신뢰도(α)=.926
	정서적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 짜증나는(역산), 부정적인(역산), 무기력한(역산)	6개 문항 평균, 7점 척도 점수가 클수록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높음 신뢰도(α)=.944
	심리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자유롭다. 좋은 않은 일이 있음 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나의 삶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5개 문항 평균, 7점 척도 점수가 클수록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 높음 신뢰도(α)=.9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인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인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최종학력, 월소득, 종교에 따른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의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 및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복감과 관련한 연구 문제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오케스트라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198명중 성별은 남성이 68명, 여성은 130명, 여성이 65.7%로 남성 34.3%보다 높다. 다만 오케스트라 참여자에서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비참여자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참여 대상자의 성별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성별	남성	18(17.5)	50(52.6)	68(34.3)
	여성	85(82.5)	45(47.4)	130(65.7)

2) 결혼상태

결혼상태는 미혼이 31명 15.7%이며 기혼이 167명으로 84.3%로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기혼의 비율이 높다.

<표 5> 참여 대상자의 결혼상태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결혼상태	미혼	9(8.7)	22(23.2)	31(15.7)
	기혼	94(91.3)	73(76.8)	167(84.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연령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는 45명 22.7%(오케스트라 참여자 19명, 비참여자 26명), 40대는 55명 27.8%(오케스트라 참여자 30명, 비참여자 25명), 50대는 70명 35.4%(오케스트라 참여자 39명, 비참여자 31명) 그리고 60대이상은 28명 14.1%(오케스트라 참여자 15명, 비참여자 13명)로 두 집단 모두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참여 대상자의 연령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연령	30대	19(18.4)	26(27.4)	45(22.7)
	40대	30(29.1)	25(26.3)	55(27.8)
	50대	39(37.9)	31(32.6)	70(35.4)
	60대이상	15(14.6)	13(13.7)	28(14.1)

4) 직업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공무원이 41명 20.7%(오케스트라 참여자 9명, 비참여자 32명), 다음으로 무직인 경우가 32명 16.2%(오케스트라 참여자 17명, 비참여자 15명), 전문직이 36명 18.2%(오케스트라 참여자 19명, 비참여자 17명) 그리고 회사원은 25명 12.6%(오케스트라 참여자 14명, 비참여자 11명)이며, 자영업은 19명 9.6%와 서비스직이 14명 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참여 대상자의 직업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직업	회사원	14(13.6)	11(11.6)	25(12.6)
	공무원	9(8.7)	32(33.7)	41(20.7)
	전문직	19(18.4)	17(17.9)	36(18.2)
	서비스직	8(7.8)	6(6.3)	14(7.1)
	자영업	13(12.6)	6(6.3)	19(9.6)
	무직	17(16.5)	15(15.8)	32(16.2)
	기타	23(22.3)	8(8.4)	31(15.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최종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공통적으로 대졸 학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오케스트라 참여자 66명 64.1%, 비참여자 58명 61.1%). 또한 오케스트라 참여자는 고졸이하가 21명 20.4%, 대학원 졸업은 16명 15.5% 순이며, 비참여자는 대학원 졸업이 24명 25.3%, 고졸이하가 13명 1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참여 대상자의 최종학력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1(20.4)	13(13.7)	34(17.2)
	대학교 졸업	66(64.1)	58(61.1)	124(62.6)
	대학원 졸업	16(15.5)	24(25.3)	40(20.2)

6) 월 소득

응답자의 월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군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61명 30.8%(오케스트라 참여자 30명, 비참여자 31명)이며, 다음으로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이 34명(오케스트라 참여자 13명, 비참여자 21명),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은 33명 16.7%(오케스트라 참여자 21명, 비참여자 12명) 그리고 100만원미만은 20명 10.1%, 500만원이상이 18명 9.1%로 조사되었다. 다만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 참여자 모두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참여 대상자의 월 소득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월 소득	100만원미만	15(14.6)	5(5.3)	20(10.1)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1(20.4)	12(12.6)	33(16.7)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29.1)	31(32.6)	61(30.8)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3(12.6)	21(22.1)	34(17.2)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6(15.5)	16(16.8)	32(16.2)
	500만원 이상	8(7.8)	10(10.5)	18(9.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종교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종교적 특성을 살펴보면, 오케스트라 참여자에서는 개신교(기독교)가 76명 73.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교 11명 10.7%, 천주교 8명 7.8% 그리고 불교와 기타 종교가 각각 4명 3.9%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참여자에서는 무교가 43명 45.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개신교(기독교)가 24명 25.3%, 천주교 14명 14.7%, 불교 12명 12.6% 그리고 기타 2명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참여 대상자의 종교

구분		빈도(%)		전체(%)
		오케스트라 참여자	비참여자	
종교	개신교(기독교)	76(73.8)	24(25.3)	100(50.5)
	천주교	8(7.8)	14(14.7)	22(11.1)
	불교	4(3.9)	12(12.6)	16(8.1)
	무교	11(10.7)	43(45.3)	54(27.3)
	기타	4(3.9)	2(2.1)	6(3.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10문항 평균으로 측정한 변수이다. 활동만족도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1>은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스포츠나 독서 및 게임과 같은 비참여자들이 소속되어있는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표 11>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평균차이 분석

활동만족도	N	M	SD	t
오케스트라 참여자	103	6.04	1.15	4.03***
비참여자	95	5.24	1.61	

*p<.05, **p<.01, ***p<.001

(1)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성별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성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여성의 활동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각각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참여 집단 별 활동만족도의 성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12>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성별 차이 분석

변 수	성별	N	M	SD	t
전체 활동만족도	남성	68	5.34	1.65	-2.270*
	여성	130	5.83	1.30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남성	18	6.17	.65	.504
	여성	85	6.02	1.23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남성	50	5.04	1.80	-1.287
	여성	45	5.47	1.37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결혼상태 별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결혼상태 별 평균차이 분석 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전체 만족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미혼보다 기혼의 활동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혼상태 별 오케스트라 참여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비참여자 활동만족도는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의하게 살펴볼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에 상관없이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 활동만족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결혼상태 별 차이 분석

변 수	결혼상태	N	M	SD	t
전체 활동만족도	미혼	31	4.85	1.53	-3.497***
	기혼	167	5.81	1.39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미혼	9	5.44	1.06	-1.641
	기혼	94	6.10	1.15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미혼	22	4.60	1.64	-2.163*
	기혼	73	5.44	1.57	

*p<.05, **p<.01, ***p<.001

(3)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연령대 별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연령대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 검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이상의 활동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40대, 그리고 50대, 마지막으로 30대의 순위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의 각각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전체 활동만족도와 동일하게 60대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40대, 그리고 50대, 마지막으로 30대 순이며,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60대이상, 그리고 40대, 마지막으로 30대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4>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연령대 별 차이 분석

변수	종교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전체 활동만족도	30대	45	5.14	1.46	집단간	16.38	3	5.46	2.67*	-
	40대	55	5.84	1.28						
	50대	70	5.74	1.58	집단내	397.20	194	2.05		
	60대이상	28	5.92	1.25	합계	413.58	197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30대	19	5.75	.83	집단간	4.27	3	1.42	1.07	-
	40대	30	6.21	.92						
	50대	39	5.94	1.52	집단내	131.20	99	1.33		
	60대이상	15	6.35	.68	합계	135.47	102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30대	26	4.69	1.66	집단간	10.94	3	3.65	1.41	-
	40대	25	5.40	1.51						
	50대	31	5.49	1.65	집단내	235.57	91	2.59		
	60대이상	13	5.43	1.58	합계	246.51	94			

*p<.05, **p<.01, ***p<.001

(4)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에 따른 직업 간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에 따른 직업 간 차이 분석 검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전체 활동만족도, 오케스트라 활동만족도, 동호회 활동만족도 모두 직업에 따른 활동만족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기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활동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활동만족도는 자영업이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공무원, 무직, 회사원, 마지막으로 서비스직 순이고,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무직이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마지막으로 서비스직 순이며,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자영업이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공무원, 서비스직, 회사원, 마지막으로 무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가 시간 및 경제적 여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5>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직업 간 차이 분석

변수	직업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전체 활동만족도	회사원	25	5.37	1.82	집단간	22.11	6	3.69	1.80	-
	공무원	41	5.77	1.23						
	전문직	36	5.78	1.25	집단내	391.47	191	2.05		
	서비스직	14	4.83	1.90						
	자영업	19	5.98	1.27						
	무직	32	5.39	1.57	합계	413.58	197			
	기타	31	6.06	1.22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회사원	14	5.99	1.50	집단간	14.70	6	2.45	1.95	-
	공무원	9	6.23	0.61						
	전문직	19	5.90	1.05	집단내	120.77	96	1.26		
	서비스직	8	4.86	2.12						
	자영업	13	6.09	1.15						
	무직	17	6.32	0.66	합계	135.47	102			
	기타	23	6.29	0.81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회사원	11	4.58	1.95	집단간	28.07	6	4.68	1.88	-
	공무원	32	5.64	1.33						
	전문직	17	5.65	1.45	집단내	218.44	88	2.48		
	서비스직	6	4.78	1.75						
	자영업	6	5.73	1.58						
	무직	15	4.33	1.65	합계	246.51	94			
	기타	8	5.40	1.92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최종학력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최종학력 차이 분석 검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먼저 전체 활동만족도,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최종학력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참여자의 최종학력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원졸업이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졸업, 마지막으로 고졸이하 순으로 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최종학력 차이 분석

변수	최종학력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전체 활동만족도	고졸이하	34	5.46	1.73	집단간	8.82	2	4.41	2.13	-
	대학교졸업	124	5.58	1.44	집단내	404.76	195	2.08		
	대학원졸업	40	6.07	1.16	합계	413.58	197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고졸이하	21	6.14	1.17	집단간	.77	2	.39	.29	-
	대학교졸업	66	5.98	1.22	집단내	134.70	100	1.35		
	대학원졸업	16	6.18	0.82	합계	135.47	102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고졸이하	13	4.35	1.94	집단간	24.79	2	12.39	5.14**	고졸이하 <대학원 졸업이상
	대학교졸업	58	5.13	1.54	집단내	221.73	92	2.41		
	대학원졸업	24	6.00	1.35	합계	246.51	94			

*p<.05 **p<.01 ***p<.001

(6)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월 소득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월 소득 차이 분석 검증 결과는 <표 17>과 같다. 전체 활동만족도의 월 소득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 월 소득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7>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월 소득 차이 분석

변수	월소득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전체 활동만족도	100만원미만	20	5.59	1.72	집단간	29.68	5	5.94	2.97*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33	5.35	1.6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1	5.37	1.55	집단내	383.90	192	2.00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4	5.58	1.45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2	6.21	0.83	합계	413.58	197			
	500만원이상	18	6.46	0.69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100만원미만	15	6.32	0.78	집단간	12.64	5	2.53	2.00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1	5.95	1.29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	5.57	1.45	집단내	122.83	97	1.27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3	6.14	1.08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6	6.46	0.53	합계	135.47	102			
	500만원이상	8	6.51	0.47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100만원미만	5	3.40	1.99	집단간	49.81	5	9.96	4.51***	100만원미만<5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2	4.28	1.63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1	5.17	1.64	집단내	196.70	89	2.21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21	5.24	1.57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6	5.95	1.00	합계	246.51	94			
	500만원이상	10	6.41	0.85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종교 차이 분석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종교 차이 분석 검증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 활동만족도,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모두 종교 별 활동만족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종교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를 제외한 구체적인 활동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활동만족도는 기독교가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 마지막으로 무교이고,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천주교가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무교, 불교, 마지막으로 기독교이며,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기독교가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불교, 천주교, 마지막으로 무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종교와 특별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종교 차이 분석

변수	종교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전체 활동만족도	기독교	100	5.90	1.26	집단간	18.03	4	4.51	2.20	-
	천주교	22	5.60	1.74						
	불교	16	5.47	1.40	집단내	395.55	193	2.05		
	무교	54	5.23	1.63						
	기타	6	6.22	0.77	합계	413.58	197			
오케스트라 참여자 활동만족도	기독교	76	5.97	1.22	집단간	2.07	4	.52	.38	-
	천주교	8	6.43	0.86						
	불교	4	6.03	0.79	집단내	133.40	98	1.36		
	무교	11	6.25	1.09						
	기타	4	6.13	0.85	합계	135.47	102			
비참여자 활동만족도	기독교	24	5.68	1.39	집단간	10.48	4	2.62	1.00	-
	천주교	14	5.12	1.96						
	불교	12	5.28	1.53	집단내	236.03	90	2.62		
	무교	43	4.97	1.66						
	기타	2	6.40	0.85	합계	246.51	94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주관적 안녕감(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의 차이 분석에서는 오케스트라 참여자 및 비참여자들의 참여유형 간 주관적 안녕감 평균차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즉,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영역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참여자들 보다는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이 모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이 상당부분 상관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19>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 평균차이 분석

변 수		참여유형	N	M	SD	t
주관적 안녕감	인지적	오케스트라 참여자	103	5.49	1.12	3.604***
		비참여자	95	4.78	1.66	
	정서적	오케스트라 참여자	103	5.72	1.13	4.061***
		비참여자	95	4.91	1.66	
	심리적	오케스트라 참여자	103	5.75	1.12	3.396***
		비참여자	95	5.08	1.64	

*p<.05, **p<.01, ***p<.001

(1)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분석

변 수		성별	N	M	SD	t
주관적 안녕감	인지적	남성	68	4.76	1.54	-2.810*
		여성	130	5.36	1.37	
	정서적	남성	68	4.92	1.70	-2.935**
		여성	130	5.55	1.27	
	심리적	남성	68	5.05	1.59	-2.728**
		여성	130	5.63	1.31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주관적 안녕감의 결혼상태 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결혼상태 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의 주관적 안녕감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주관적 안녕감의 결혼상태 별 분석

변 수		결혼상태	N	M	SD	t
주관적 안녕감	인지적	미혼	31	4.19	1.71	-4.171**
		기혼	167	5.33	1.33	
	정서적	미혼	31	4.42	1.73	-3.937***
		기혼	167	5.51	1.35	
	심리적	미혼	31	4.60	1.76	-3.625***
		기혼	167	5.58	1.31	

*p<.05, **p<.01, ***p<.001

(3) 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 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인지적, 심리적 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지적, 심리적 영역의 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서적 안녕감은 연령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 간 분석

변수	종교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인지적	30대	45	4.75	1.71	집단간	9.64	3	3.21	1.54	-
	40대	55	5.32	1.39	집단내	405.00	194	2.09		
	50대	70	5.23	1.34						
	60대이상	28	5.26	1.35	합계	414.63	197			
정서적	30대	45	4.73	1.72	집단간	21.27	3	7.09	3.45*	30대<50대<40대
	40대	55	5.55	1.33	집단내	399.28	194	2.06		
	50대	70	5.50	1.37						
	60대이상	28	5.45	1.29	합계	420.55	197			
심리적	30대	45	5.16	1.66	집단간	6.20	3	2.07	1.01	-
	40대	55	5.63	1.31	집단내	397.06	194	2.05		
	50대	70	5.39	1.46						
	60대이상	28	5.58	1.15	합계	403.26	197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주관적 안녕감의 직업 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직업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직업 간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지적 안녕감의 평균은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공무원, 회사원, 무직, 마지막으로 서비스직이고, 정서적 안녕감은 자영업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공무원, 무직, 회사원, 마지막으로 서비스직이며, 심리적 안녕감은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자영업, 회사원, 무직, 마지막으로 서비스직 순이다. 이 결과, 세 영역의 안녕감은 직업에 따라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직의 주관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인 특성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3> 주관적 안녕감의 직업 간 분석

변수	직업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인지적	회사원	25	4.86	1.37	집단간	36.70	6	6.12	3.09**	-
	공무원	41	5.32	1.31						
	전문직	36	5.52	1.38	집단내	377.94	191	1.98		
	서비스직	14	3.97	1.99						
	자영업	19	5.34	1.04						
	무직	32	4.80	1.51	합계	414.63	197			
	기타	31	5.53	1.36						
정서적	회사원	25	4.91	1.52	집단간	44.89	6	7.48	3.80***	서비스직<기타<전문직<자영업
	공무원	41	5.49	1.24						
	전문직	36	5.71	1.44	집단내	375.67	191	1.97		
	서비스직	14	3.98	1.50						
	자영업	19	5.75	1.20						
	무직	32	5.09	1.59	합계	420.56	197			
	기타	31	5.66	1.33						
심리적	회사원	25	5.10	1.62	집단간	47.02	6	7.84	4.20***	서비스직<기타<공무원<전문직
	공무원	41	5.74	1.19						
	전문직	36	5.80	1.20	집단내	356.24	191	1.87		
	서비스직	14	4.03	1.99						
	자영업	19	5.72	1.17						
	무직	32	5.06	1.51	합계	403.26	197			
	기타	31	5.70	1.15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주관적 안녕감의 최종학력 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최종학력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지적 및 심리적 안녕감의 최종학력 평균은 대학원졸업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졸업, 마지막이 고졸이하인 반면, 정서적 안녕감은 대학원졸업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고졸이하, 마지막으로 대학교졸업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24> 주관적 안녕감의 최종학력 간 분석

변수	최종학력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인지적	고졸이하	34	4.84	1.66	집단간	24.84	2	12.42	6.21**	고졸이하<대학원졸업
	대학교졸업	124	5.01	1.41	집단내	389.80	195	2.00		대학교졸업<대학원졸업
	대학원졸업	40	5.85	1.17	합계	414.63	197			
정서적	고졸이하	34	5.40	1.36	집단간	18.60	2	9.30	4.51*	대학교졸업<대학원졸업
	대학교졸업	124	5.13	1.50	집단내	401.96	195	2.06		
	대학원졸업	40	5.91	1.28	합계	420.56	197			
심리적	고졸이하	34	5.11	1.64	집단간	15.79	2	7.89	3.97*	고졸이하<대학원졸업
	대학교졸업	124	5.35	1.38	집단내	387.47	195	1.99		
	대학원졸업	40	5.97	1.30	합계	403.26	197			

*p<.05, **p<.01, ***p<.001

(6) 주관적 안녕감의 월 소득 수준 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월 소득 수준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 영역의 주관적 안녕감 모두 500만원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마지막으로 100만원미만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5> 주관적 안녕감의 월 소득 수준 간 분석

변수	월소득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인지적	100만원미만	20	4.78	1.70	집단간	14.04	5	2.81	1.35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33	4.99	1.68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1	5.01	1.52	집단내	400.60	192	2.09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4	5.29	1.36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2	5.31	1.08	합계	414.63	197			
	500만원이상	18	5.81	1.09						
정서적	100만원미만	20	4.88	2.01	집단간	13.01	5	2.60	1.23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33	5.19	1.65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1	5.26	1.44	집단내	407.55	192	2.12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4	5.36	1.39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2	5.57	1.08	합계	420.55	197			
	500만원이상	18	5.91	1.09						
심리적	100만원미만	20	4.87	1.72	집단간	14.23	5	2.85	1.40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33	5.28	1.67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1	5.45	1.54	집단내	389.03	192	2.03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4	5.38	1.32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2	5.63	1.05	합계	403.26	197			
	500만원이상	18	6.00	0.75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주관적 안녕감의 종교 간 평균차이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종교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영역 모두 종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종교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를 제외하면 인지적 및 심리적 안녕감의 종교 간 평균은 기독교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불교, 천주교, 마지막이 무교인 반면, 정서적 안녕감은 기독교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 마지막으로 무교로 기독교가 가장 높고 무교가 가장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26> 주관적 안녕감의 종교 간 분석

변수	종교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N	M	SD	항목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인지적	기독교	100	5.43	1.20	집단간	35.96	4	8.99	4.58***	무교<개신교 무교<기타
	천주교	22	4.97	1.73						
	불교	16	5.11	1.40	집단내	378.68	193	1.96		
	무교	54	4.59	1.64						
	기타	6	6.47	0.70	합계	414.63	197			
정서적	기독교	100	5.63	1.27	집단간	25.72	4	6.43	3.14*	무교<개신교
	천주교	22	5.18	1.72						
	불교	16	5.17	1.40	집단내	394.84	193	2.05		
	무교	54	4.83	1.60						
	기타	6	6.00	1.27	합계	420.56	197			
심리적	기독교	100	5.67	1.23	집단간	20.89	4	5.22	2.64*	
	천주교	22	5.19	1.69						
	불교	16	5.46	1.45	집단내	382.36	193	1.98		
	무교	54	4.99	1.60						
	기타	6	6.17	1.02	합계	403.26	197			

*p<.05, **p<.01, ***p<.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음악에서도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져 간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하여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며 음악활동에서도 다양한 참여를 유도한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은 음악의 생활화 혹은 개인적인 만족감, 그리고 활동에 따라 성인기에도 효과적인 음악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광주 · 전남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동호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오케스트라의 유형과 참여방법을 살펴보았고 일반 동호회 형태의 비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인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최종학력, 월소득, 종교에 따른 내용으로 주관적 안녕감(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의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 및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일반적인 성별은 여성이 높게 나왔으며 비 참여자에서는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높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 여부는 두 집단 모두 기혼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두 집단 모두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전체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무직,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마지막으로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두 집단 공통적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오케스트라 참여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순이었고, 비 참여자에서는 대학원 졸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두 집단 전체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소득군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제일 높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종교에서는, 오케스트라 참여자가 개신교(기독교)에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비참여자에서는 무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신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 전체 만족도에 대한 성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여성의 활동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상태 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전체 만족도 평균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미혼보다 기혼의 활동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전체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업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전체 활동만족도,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최종학력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전체 활동만족도,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월 소득 수준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전체 활동만족도,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활동만족도는 종교와 특별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이다.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참여유형 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세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상태 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혼보다는 기혼의 평균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서 인지적 영역은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정서적 영역은 자영업, 심리적 영역은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왔다. 최종학력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냈고, 세 영역의 평균은 대학원졸업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 소득 수준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평균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종교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세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세 영역 모든 부분에 관련성이 높은 것은 성별, 결혼상태, 최종학력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월 소득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과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만족도는 성인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오케스트라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변수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오케스트라(동호회)활동 범위를 위하여 향후 보다 다양한 환경과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활동 동호회의 활성화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오케스트라의 참여 의사는 있으나 접근성에 부재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스포츠 동호회 분야처럼 예술활동 동호회 분야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다가갈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오케스트라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써는 주민센터 및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업 외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모든 국민 남녀노소가 음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이는 곧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영향력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셋째, 국민공통 교육과정에 1인 1악기 필수화

국민공통 교육과정에 오케스트라 및 1인 1악기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학교 재량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앞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오케스트라 및 1인 1악기 수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간다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 시스템이 진행된다면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와 학업 능력에도 좋은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고계명. “제주지역 공무원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음악 동호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김두석.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지원과 종료 학교의 운영현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7.

김 건. “국내 대중음악 편곡에서 오케스트라의 활용방안 연구: 발라드 장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한국문화융합학회, 439-455(17), 2019.

김다희. “최근 10년 간 선행논문비교 분석을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김사라형선.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중재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김석환 · 문병률 · 권중호 · 차정훈. “테니스 동호회 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여가만족도”.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1113-1120, 2006.

김섬김. “교육부 지원 대구지역 중학교 학생 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김수린.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김승혁. “문화예술활동 참여 동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예술교육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2017.

김은진. “국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1.

김원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종식. “노인평생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 및 삶의 질 간의 관계연구: 종교생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2015.

김지선. “교과부지원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김 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통과 여가활동 및 음악적 현황 조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김혜란. “교회시설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3.

권정은. “서울•경기 인문계 고등학교 관악부와 관악예술과 운영실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 정미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 개발원, 2005.

민은기. “인쇄물의 발달이 16세기 서양음악사회에 미친 영향.” 민족음악학회, 2004, p. 153.

박상하. “기악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필수 악기지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박유림. “성인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 동기의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박은승.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과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관한 질적·양적 통합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박진솔. “구조화된 악기연주활동이 양로시설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 및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7.

백선영.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험과 이에 따른 변화: 바이올린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석문주. “Music teacher education in korea through the year 2000: a Delphi study.” 박사논문학위,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1991.

설연경.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에서 미적 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

설연경.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의 의미와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과의 관련성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2013, p. 179-2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지경.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 동기가 청소년 정서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꿈의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5.

양현미 · 박은영 · 전효관 · 정은희 · 홍진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4.

윤솔지. “아마추어 합창단의 평생교육기능연구: 광주소재 합창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5.

이기영. “플루트 연주활동이 중년여성의 우울증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이루리.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이철현 · 김장환 · 고승철. “경찰공무원의 체육동호회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25, 701-713.

임번장. “생활체육의 의의 및 필요성.” 스포츠 과학, 35, 1-6, 2000.

임 환.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2015.

장기범. “오케스트라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과 비평, 4(4), 5-13, 2005.

장민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만족도 분석: 전라북도 익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2014.

장보민. “문학 중심의 융합 문화예술교육 효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2014.

장영일.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오케스트라 동호회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장인성. “여가활동들의 영향요인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전수민. “동호회 활동 만족도가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체피 보르사치니 · 김희경 번역.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 푸른숲, 20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경운. “한국의 여가가 변하고 있다.” LG Bisiness Insight 1108. LG경제연구원, 2010.

최선애. “여가활동, 여가참여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최성애. “노인의 레져 스포츠활동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8.

최수이 · 최경호. “오케스트라 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한국 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25-31(7), 최수이, 최경호.

최현묵.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하미경.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및 개방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홍열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경기지역의 5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황보경자. “신 중년여성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Brightbill, C. K. “The challenge of leisure.” Prentice-hall, 1963.

Campbell, Angus.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cal 1976.

Diener, E. “Subject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84.

Dumazedier, J. “Towards a society of leisure”. Free press, 1967.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and M. Reder.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89-123,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Kozinets, R, V. “E-trivialized marketing?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virtual communities of consumption.” European Management Journal, 17(3), 252-264, 1999.

Parker, S. R. “Sociology of leisure.” Sociology, 10(1), 166-167, 1976.

Ryff, Carol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198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zalai, Alexander.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beverly hills: Sage 1980.

Veenhoven, R.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199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오케스트라(동호회) 대상 설문지>

본 설문지는 <오케스트라 (동호회) 활동이 주는 행복감. (광주•전남지역 오케스트라 단원 대상)>을 주제로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 단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남 성 ②여 성

2. 연 령

①30대 ②40대 ③50대 ④60대이상

3. 직 업

①회사원 ②공무원 ③전문직 ④서비스직 ⑤자영업 ⑥무직 ⑦기타

4. 결혼상태

① 미 혼 ② 기 혼

5. 최종학력

①고등학교 졸업이하 ②대학교 졸업 ③대학원 졸업

6. 월 소득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③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④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⑧ 500만원 이상~

7. 종 교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무교 ⑤기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은 '오케스트라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오케스트라(동호회) 활동이 재미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2. 오케스트라(동호회)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3. 오케스트라(동호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오케스트라(동호회)에 관심이 매우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5. 오케스트라(동호회) 수업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6. 오케스트라(동호회)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7. 오케스트라(동호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8. 오케스트라(동호회)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9. 주위사람의 권유로 마지못해 활동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10.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은 '주관적 안녕감 (인지도 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2.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3.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져 왔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5.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은 '주관적 안녕감 (정서적 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즐거운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2. 행복한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3. 편안한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짜증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5. 부정적인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6. 무기력한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자유롭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3.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5. 나의 삶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